



백삼위 한인성당

2701 W.237th St. Torrance, CA 90505
 www.103skcc.org 103skccusa@gmail.com

담임신부 626-215-7224
 전교수녀 213-804-9151
 평협회장 310-408-1443
 연령회장 310-749-8942
 사무실 310-326-4350

주일미사	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평일미사	월,화	미사없음
	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가족미사	오전 9시 30분		목,금	오전 9시 30분
	교중미사	오전 11시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평일 · 토요일 미사 30분 전				

사무실 업무시간	
월,화,토	휴무
수,목,금	8:30am - 12:30pm
주일	8:30am - 12:30pm

(다해) 연중 제7주일

입당 : 희망의 순례자들 파견 : 6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시편 103, 1-2, 3-4, 8, 10, 12-13)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 ◎

◎ The Lord is kind and merciful.

(Psalms 103:1-2, 3-4, 8, 10, 12-13)

-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all my being, bless his holy name.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forget not all his benefits. ◎
- He pardons all your iniquities, heals all your ills. He redeems your life from destruction, crowns you with kindness and compassion. ◎
- Merciful and gracious is the LORD,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kindness. Not according to our sins does he deal with us, nor does he requite us according to our crimes. ◎
- As far as the east is from the west, so far has he put our transgressions from us. As a father has compassion on his children, so the LORD has compassion on those who fear him. ◎

재

장미가 한 송이 곱게 피었다. 어제까지도 수줍게 봉오리만 짓고 있더니 어느새 살며시 피어 있다. 꽃잎에도 새벽이 물 들어 있다. 그것을 누가 와서 싹둑 베어갔다. 병에 꽂아놓고 한동안 보더니 곧 싫증이 났는지 아궁이에 넣어버렸다. 잠깐 사이에 그 아름다움이 재가 되어버렸다.

불이 이렇게 잠깐 사이에 하는 일을 세월은 끊임없이 모든 산 것에게 하고 있다. 잎이 무성한 고사리에서부터 날씬한 코스모스, 몇 아름씩 되는 느티나무까지도 다 마찬가지다. 재빠른 다람쥐도 육중한 황소도 다름없다. 상처로든 병으로든 불에 타서든 굶주려서든, 꽃피었던 모든 생명이 언젠가는 재가 되게 마련이다.

또렷하던 모습은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한줌 재가 되고, 영롱하던 오색은 거무스레한 가루가 되고 만다. 그토록 따스하게 움트던 민감한 생명이 저 메마르고 죽은 흙, 아니 흙만도 못한 재가 되어버린다.

우리라고 다를 바 없다. 우리도 열린 무덤 안에 놓인 해골 곁에 한줌 재라도 보면 얼마나 소름이 끼치던가.

“사람아, 명심하라. 너는 흙이고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렇다. 재가 말하는 바는 바로 무상이다. 다른 것들의 무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무상을 말해준다. 봉재에 들어서면서 며칠 전 성지주일만 해도 푸르렀던 가지의 재로 십자를 내 이마에 그으면서 사제는 바로 나 자신의 덧없음을 깨쳐준다. 모두 재로 돌아간다. 내가 사는 집, 내가 입는 옷, 쓰는 그릇, 내 돈, 밭과 들과 숲. 나를 따르는 개와 외양간의 짐승까지. 지금 글씨를 쓰는 나의 이 손, 그걸 읽고 있는 눈, 나의 온몸이 모두 재로 돌아간다. 내가 사랑하던 사람, 미워하던 사람, 그리고 두려워하던 사람들. 이 세상에서 내게 커 보이던 것, 작아 보이던 것, 하찮아 보이던 것, 모두 재로 돌아간다. 모두, 모두.

▶ 반장 월례 모임

일시 : 2월 23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소회의실

▶ 요셉회 모임

일시 : 2월 23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강당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월례회

일시 : 3월 2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강당

▶ 성지 회수

3월 5일은 재의 수요일입니다.

지난 해 성지주일에 나누어 드려 1년동안 각 가정에 장식해 온 성지를 회수합니다.

3월 2일(주일)까지 성전입구 바구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희년(Jubilee) 캠페인

- 1) 미사시간 10분 전 도착하기
- 2) 성당 안에서 침묵하기
- 3) 단정한 복장으로 미사참례하기

▶ 각 단체 물품 정리 공지

1층 복도와 2층 유아실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는 각 단체별 물품들을 정리합니다. 각 단체에서는 2월 28일(금)까지 물품들을 1층 강당 수납창고 선반에 놓여져 있는 박스에 옮겨 정리 후 박스 겉면에 단체명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물품들은 모두 수거해서 폐기처분하겠습니다.
문의 : 총무 문상헌 대건안드레아 ☎ 213-268-7459

▶ 면형무아 성경공부 안내

(히브리서, 가톨릭서간, 요한묵시록 - 한국어)

- 화요일(대면반) 개강 3월 11일 오전 9:30~11:00
- 화요일(비대면반) 개강 3월 11일 오후 7:30~9:00
- 수요일(비대면반) 개강 3월 12일 오후 7:30~9:00
- 목요일(비대면반) 개강 3월 13일 오후 7:30~9:00
- 금요일(비대면반) 개강 3월 14일 오전 9:30~11:00

* 수강료 : 1회 참석할 때마다 \$7

ZOOM을 통한 비대면 강의 : 인터넷 주소는 개별통보합니다.

신청 : 장명화 수산나 수녀 ☎ 562-900-8777

우리들의 정성

교 무 금 \$ 6,570.00
주일헌금 \$ 4,109.00

합 계 \$ 10,679.00

고천용	강숙경	김재희	김성택	박건양	박정화	박의태
반비오	송인선	손세호	신순철	이예영	이행자	임광선
유중수	정윤옥	지경수	최기진	최승진	한길선례	홍석인